

# 경제주평

- 역(逆)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2분기)

# 목 차

## ■ 역(逆)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2분기)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2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2
4. 시사점 .....	19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역(逆)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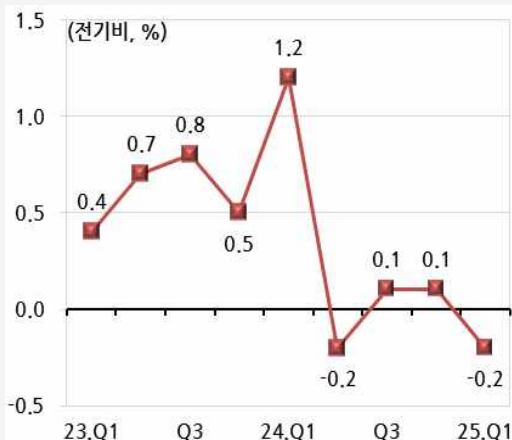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2분기)

#### ■ 개 요

(역성장 이후 경기 반등 모색) 한국 경제는 1분기 역성장을 딛고 2분기 현재 경기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나, 아직은 그 개선되는 속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전기비  $\Delta 0.2\%$ 의 역(逆)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수요 부문별로도 민간소비(전기비  $\Delta 0.1\%$ ), 설비투자( $\Delta 0.4\%$ ), 건설투자( $\Delta 3.1\%$ ), 수출( $\Delta 0.6\%$ ) 등 모든 주요 수요 부문이 감소세를 기록할 정도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수요 부문 중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전기비 기준  $\Delta 0.4\%p$ 에 달해, 전체 경제의 역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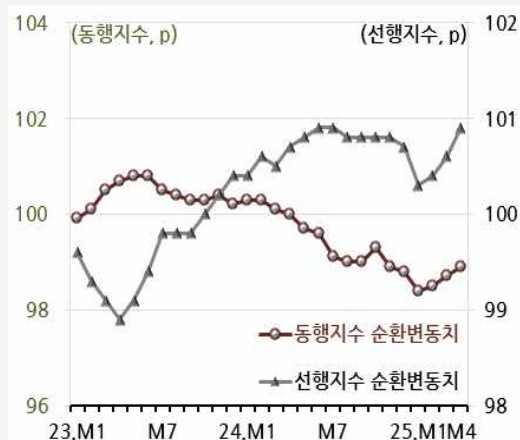
한편,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2분기에 들어 경기 전환의 모멘텀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현재 98.9p로 지난 1월을 저점으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전환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보여지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근거한다면, 지난 1월이 경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래 경기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에서 상승으로의 경기전환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절벽)**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구매력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 중이다. 소매판매는 3월 전월비  $\Delta 1.0\%$ 에 이어 4월에도  $\Delta 0.9\%$ 로 침체되었으며,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3월 0.7%에서 4월에  $\Delta 0.1\%$ 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소비 항목별로 내구재 소비가 승용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4월에도 전년동월비 4.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준내구재 소비( $\Delta 5.9\%$ )와 비내구재 소비(0.0%)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ICT 투자 회복)** 4월 설비투자는 그동안 부진했던 ICT 투자가 반등하고, 선행지표들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향후 투자 부문의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4월 전체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대비('25년 3월 대비)로는 0.4%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24년 4월 대비)로는 8.4%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4월에 들어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3.3%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24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지속 중이고,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도 3월 전년동월비 14.5%에서 4월에도 10.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건설투자 불황 지속)**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월 건설기성 증가율(전년동월비)은  $\Delta 20.1\%$ 로 '24년 5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발주자별로도 공공 부문의 건설기성이 4월 전년동월비  $\Delta 10.0\%$ 의 감소세를 보이고, 민간 부문도  $\Delta 22.1\%$ 로 급감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도 4월에 전년동월비  $\Delta 17.5\%$ 로 2월과 3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발주자별로도 공공 부문( $\Delta 7.1\%$ )과 민간 부문( $\Delta 19.7\%$ ) 모두 향후 산업 경기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수출 경기 침체 본격화)** 주요 품목 수출의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5월 수출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수출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수출증가율은 4월 전년동월비 3.7%에서 5월에  $\Delta 1.3\%$ 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선박(4.3%), 반도체(21.2%) 등의 5개 품목만 증가하였다. 특히, 5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Delta 4.4\%$ , 자동차부품은  $\Delta 9.4\%$ 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력 산업 및 청년층의 고용창출력 고갈)** 전체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4월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24년 4월)의 3.0%보다 하락하였으나, 4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7.3%로 전년동월의 6.8%보다 높아졌다. 한편, 4월 전체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도 전년동월비 19.4만 명으로 3월의 19.3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년 전에 비해 60.5만 명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12.4만 명)과 건설업(△15.0만 명)은 일자리가 축소되었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22년 11월 이후 3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 중이다.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 급감 속 수요측 상승 압력 완화)**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요측 상승 압력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4월 중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다. 수입물가는 원화 약세('24년 4월 1,369원/달러 → '25년 4월 1,442원/달러)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두바이유)가 급락('24년 4월 89.2달러/bbl → '25년 4월 67.7달러/bbl)하면서 3월의 전년동월대비 3.4%의 증가세에서 4월에 △2.3%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공산품 가격이 안정되고 농림수산물 가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3월 전년동월대비 1.3%에서 4월에 0.9%로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9%, 전월대비 △0.1%의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나아가 수요 측면에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원물가상승률은 4월 2.1%에서 5월에 2.0%로 하락하였다.

**(민간 경제심리 큰 폭의 개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 중이다. 가계가 체감하는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모두 기준치(100p)를 하회하고 있으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시각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5월 63p로 4월(52p)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에 그쳤으나, 향후경기전망 CSI는 4월 73p에서 5월에 91p로 크게 높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한편 기업의 경제심리 수준을 나타내주는 BSI(기업심리지수)도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6월에 들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경협 BSI(전망)는 5월 85.0p에서 6월에 94.7p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한은 6월 CBSI(전산업)도 89.5p로 5월(86.3p)보다 상승하였다.

##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4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증가세가 약화되고 전월비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3월 전년동월비 0.9%에서 4월에 0.4%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편, 전월비 기준으로는 3월 0.9%의 증가세에서 4월에  $\Delta 0.8\%$ 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2월 이후 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가동률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생산은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반도체(21.8%), 기타운송장비(29.5%)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Delta 0.2\%$ ), 석유정제( $\Delta 2.9\%$ ) 등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4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월의 74.5%에서 4월에 들어 73.8%로 다소 낮아졌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재화와 서비스 소비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부진한 모습이다. 전월비 서비스업 생산은 3월( $\Delta 0.1\%$ )에 이어 4월에도  $\Delta 0.1\%$ 의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한편,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3월 0.8%에서 4월에 0.7%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감소하였다. 4월 건설수주(전년동월비)는 토목 부문( $\Delta 33.8\%$ )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 부문의 건설수주 증가율이 2월(1.3%)과 3월(71.0%)의 증가세에서 4월에  $\Delta 11.0\%$ 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①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Trump Tariff Uncertainty)에 따른 수출 경기 급락, ② 미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의 확산과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 이력현상(Hysteresis)의 지속, ③ 건설업 장기 불황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Economy Bugged Down) 등의 리스크 요인 향방에 의존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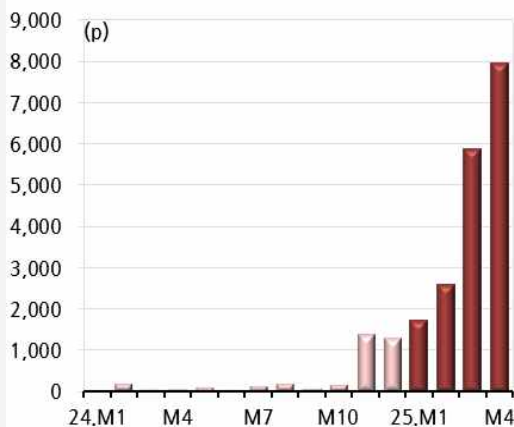
#### ①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Trump Tariff Uncertainty)에 따른 수출 경기 급락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전반의 위축이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 경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침체가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의 품목 관세 및 상호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통상정책 자체의 불확실성(예측불가능성)이 글로벌 교역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4년 9월만 하

더라도 기준치인 100p를 하회하였으나, 대통령 선거 이후 급증하여 올해 5월에는 5,000p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율 인상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반도체, 바이오 등의 품목 관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미 수출 경기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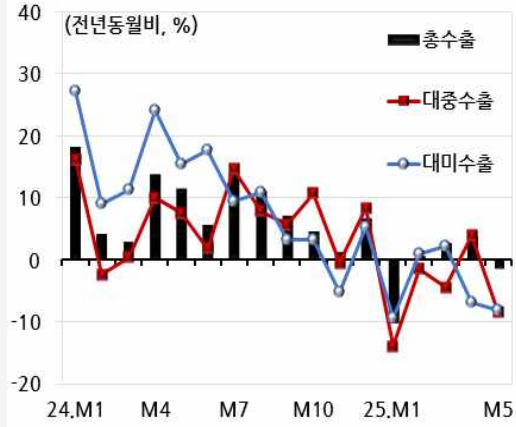
다만, 향후 한·미 관세 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될 경우 수출 침체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4년 기준 우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18.7%이며, 대중 수출 비중은 19.5%(홍콩 포함 24.6%)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직접적 영향으로 우리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거나, 간접적인 영향으로 대중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5월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8.4% 및 △8.1% 감소하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우호적 평가를 내리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의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수출 경기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도 기대해 본다.

<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Trade policy Uncertainty) 지수 추이 >



자료: www.policyuncertainty.com.

< 한국 대미수출 및 대중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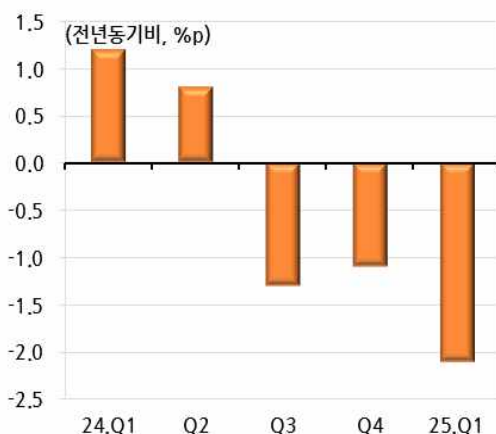
**② 미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의 확산과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의 이력현상(Hysteresis) 지속**

미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의 확산과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의 이력현상(Hysteresis)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구매력 마저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24년 하반기 이후 내수 경기 침체, 대외 경제 여건 악화, 국내 정치 불안 등으로 소비 심리

가 위축되면서, 소비 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25년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8%로 전년동기('24년 1분기)의 71.9%보다 무려 2.1%p 하락하였다. 이미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24년 3분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로 향후 실직 등과 같은 고용 상황에 대한 불안(Precautionary Saving) 심리가 높아져,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는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가 고착화(Hysteresis)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통상 정책 급변으로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부문의 부침이 우려되고, '24년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던 점도 소비 심리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 들어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구매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4년 4분기 전기비 0.1%에서 '25년 1분기 전기비  $\Delta$ 0.2%로 0.3%p 하락하는 데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실질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0.7%에서 0.1%로 0.6%p 급감하였다. 즉 경제가 후퇴(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즉 실질 GDP 감소)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소비 성향의 위축은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 요인만 해소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실제 구매력이 위축되는 현실적인 유동성 제약이 가세할 경우, 극단적인 처방 없이는 소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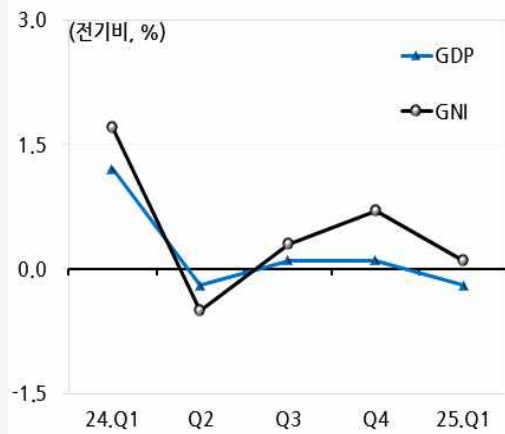
#### < 가계 평균소비성향 증감 추이 >



자료: 통계청.

주: 전국, 1인 이상, 명목, 전체가구 기준.

#### < 실질 GDP(국내총생산) 및 GNI(국민총소득)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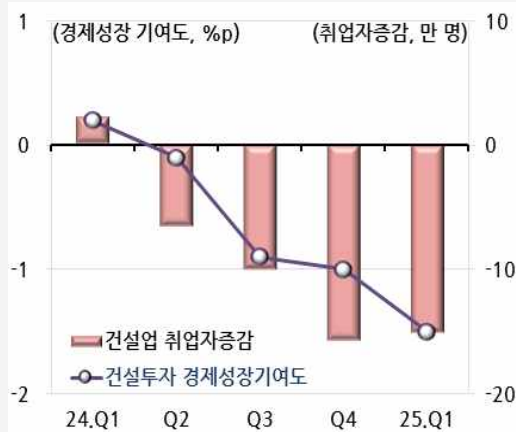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③ 건설업 장기 불황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Economy Bugged Down)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력과 고용창출력을 축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역성장의 주된 원인이 건설투자 침체에 있으며, 나아가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0.1%로 역성장을 보였는데, 이 중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1.5%p로 만약 건설투자가 제로 성장(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했어도 경제성장률은 1.4%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4월 기준 건설업의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월비 약 △15만 명으로, 이는 '24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할 정도로 고용 절벽이 견고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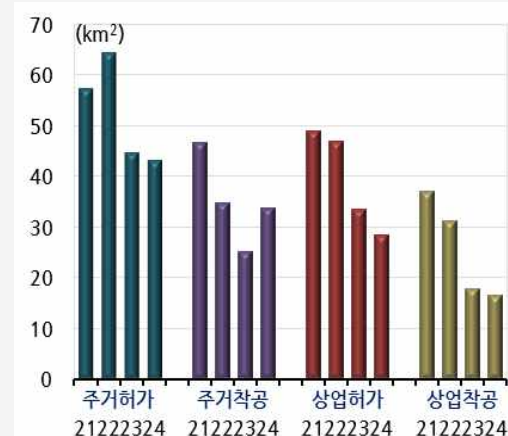
나아가 올해 정부 예산(추경) 중 토목(SOC) 재정지출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25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 중 SOC 예산은 기존 본예산 상의 25.4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24년 예산 규모인 26.4조 원보다 여전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토목 분야의 건설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24년 연간 기준으로 건설투자의 약 73%에 달하는 건축 부문의 경우 그 선행지표인 허가과 착공 규모가 급감해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침체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투자 성장기여도 및 건설업 취업자증감 추이(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취업자수증감은 각 분기 말월 기준, '25년 1분기는 4월 기준.

< 주거 및 상업 건축 허가/착공 면적 규모 추이 >



자료: 통계청.

##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전체 경기를 보여주는 총량경제지표(Aggregate Economic Index)의 흐름에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2분기에 들어 회복 사이클 초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부문별로는 대부분 활력이 약하여 전체 경기 회복세의 강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기 과도한 경기 침체(역성장)의 영향으로 2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미래 경기 전환점 도래를 예고하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간소비(GDP 대비 비중 48.5%), 건설투자(14.2%) 등의 내수 부문은 침체가 지속 중이거나 회복세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수출(44.6%, 순수출 비중 4.0%) 경기가 2분기 이후 미국 관세 인상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상존한다.

(향후 경기 전망) 현재 한국 경제가 경기 전환점(경기 하강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 부근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부문별로 보면 자력으로 리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의 여건(대미 통상 협상 결과)의 향방」과 「정책의 내수(소비 및 건설투자) 경기 진작 의지」에 따라 경기 방향성과 회복력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경로 중 하나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① U자형 (U-shaped)

#### 완만한(Moderate) 회복 시나리오(Positive Scenario)

동 시나리오는 '24년의 경기 하강 속도와 향후 경기 상승 속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25년 말경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향후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최소한으로 그치고,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경기 대응용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빠른 금리 인하)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우호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② 스우시 (Swoo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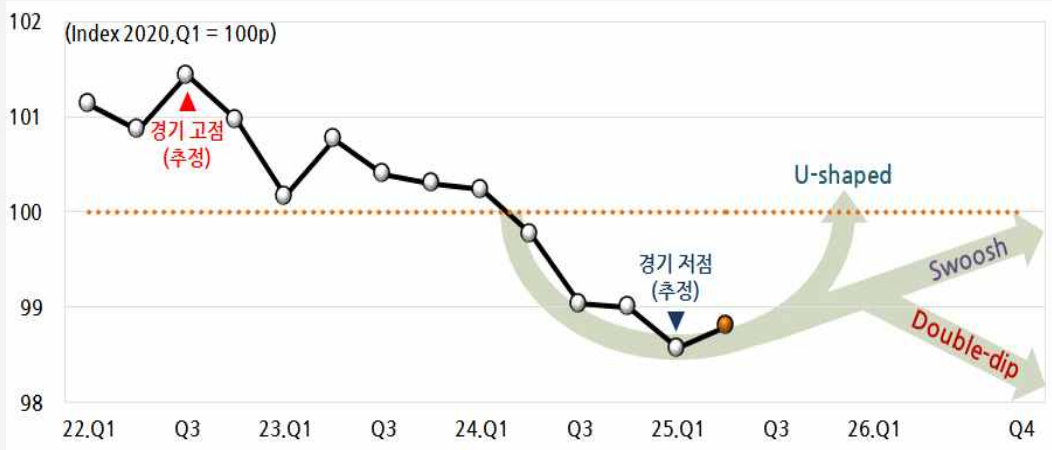
#### 저속(低速) 회복 시나리오(Base Scenario)

이는 향후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U' 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와 동일하나, '24년의 경기 하강 속도보다 향후 경기 상승 속도가 크게 낮아 경제 상황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시나리오의 전제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고, 다소 소극적인 거시경제정책(경기 대응용이 아닌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용 추경의 편성 및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충분한 회복의 모멘텀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 ③ 더블딥 (Double-dip) 재침체 시나리오(Negative Scenario)

향후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등력이 작용하나, 곧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이다.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고, 거시경제정책적 대응이 부재(추경의 적시성 상실 및 매파적 통화정책)하여 한국 경제에 대해 대내외 비관적 평가가 고착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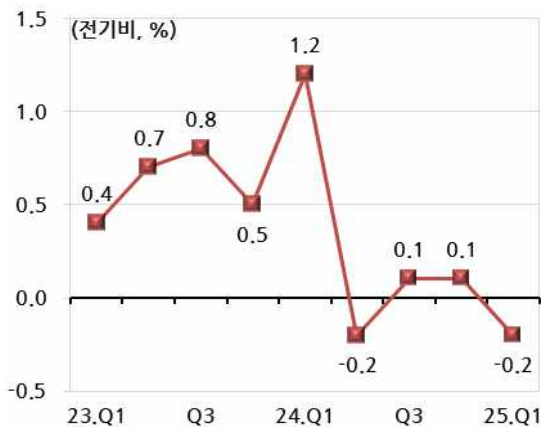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탈출하고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최근 한국 경제의 과도한 부침 속에서 현안의 경중(輕重)을 판단할 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탈출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상실한 내수 부문의 위기를 보다 심각히 바라보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 경제의 순(順)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건설투자 장기 불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를 위협하는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신속히 마무리하되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지속해 나가는 투-트랙이 요구된다. **다섯째,** 초저성장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 1. 개요

○ (역성장 이후 경기 반등 모색) 한국 경제는 1분기 역성장을 딛고 2분기 현재 경기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나, 아직은 그 개선되는 속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

-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전기비  $\Delta 0.2\%$ 의 역(逆)성장을 보였으며, 전년 동기대비로는 0.0%의 제로성장을 기록
  - 1분기에 민간소비(전기비  $\Delta 0.1\%$ ), 설비투자( $\Delta 0.4\%$ ), 건설투자( $\Delta 3.1\%$ ), 수출( $\Delta 0.6\%$ ) 등 모든 수요 부문이 감소세를 기록함
  - 한편, 수요 부문 중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전기비 기준  $\Delta 0.4\text{p}$ 에 달해, 전체 경제의 역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2분기에 들어 경기 전환의 모멘텀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현재 98.9p로 지난 1월을 저점으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98.4p, 2월 98.5p, 3월 98.7p, 4월 98.9p
  - 또한,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하강에서 상승으로의 경기전환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판단됨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100.3p, 2월 100.4p, 3월 100.6p, 4월 100.9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절벽)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구매력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

#### - 4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 모두 감소세로 전환

·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3월과 4월에 모두 감소세를 기록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24년 4분기  $\Delta 0.4\%$ , '25년 1분기  $0.4\%$ , 2월  $1.8\%$ , 3월  $\Delta 1.0\%$ , 4월  $\Delta 0.9\%$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4년 4분기  $\Delta 2.0\%$ , '25년 1분기  $\Delta 0.3\%$ , 2월  $\Delta 1.8\%$ , 3월  $0.7\%$ , 4월  $\Delta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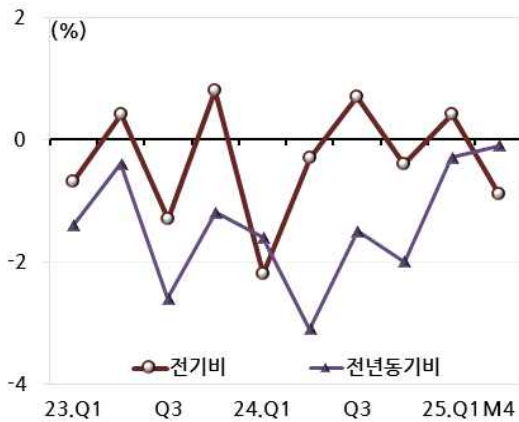
#### - 소비 항목별로 내구재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부진한 모습

· 내구재 소비는 가전제품, 가구, 통신기기 등이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부문이 증가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4년 4분기  $\Delta 4.3\%$ , '25년 1분기  $3.0\%$ , 2월  $14.4\%$ , 3월  $4.2\%$ , 4월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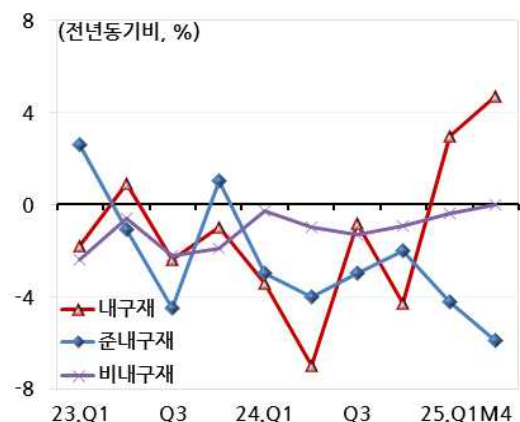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4년 4분기  $\Delta 0.9\%$ , '25년 1분기  $\Delta 0.4\%$ , 2월  $\Delta 7.0\%$ , 3월  $0.6\%$ , 4월  $0.0\%$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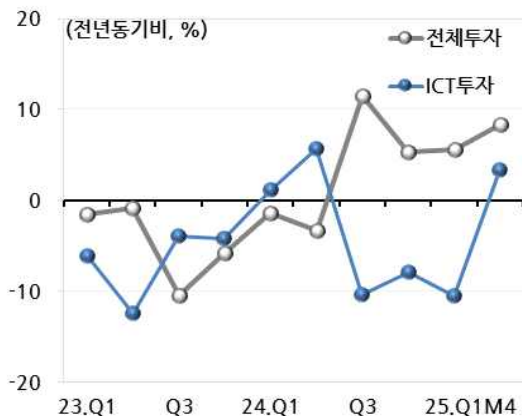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ICT 투자 회복) 주력 설비투자 부문인 ICT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설비투자 회복의 가능성이 다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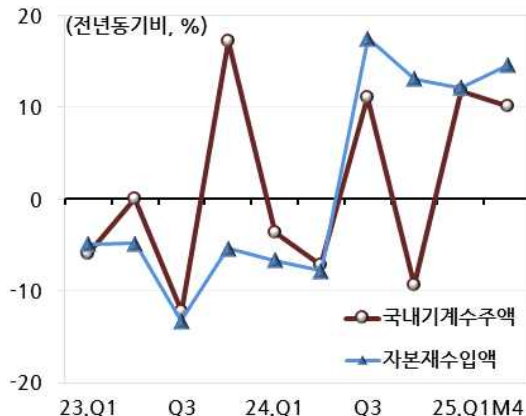
- 4월 설비투자는 ICT 투자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기준 증가세를 기록
  -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24년 4월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25년 3월 대비)로는 0.4% 감소함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4년 4분기 5.3%, '25년 1분기 5.6%, 2월 8.0%, 3월 14.5%, 4월 8.4%
  - 한편,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4월에 들어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3.3%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남
  -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4년 4분기 △7.9%, '25년 1분기 △10.5%, 2월 △7.6%, 3월 △6.1%, 4월 3.3%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과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
  - 자본재수입액은 '24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지속 중임
  -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24년 4분기 13.1%, '25년 1분기 12.2%, 2월 10.9%, 3월 25.2%, 4월 14.6%
  - 국내기계수주도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투자 회복 가능성을 시사함
  -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 '24년 4분기 △9.3%, '25년 1분기 11.8%, 2월 1.9%, 3월 14.5%, 4월 10.1%

< 설비투자지수 및 ICT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건설투자 불황 지속)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모두 감소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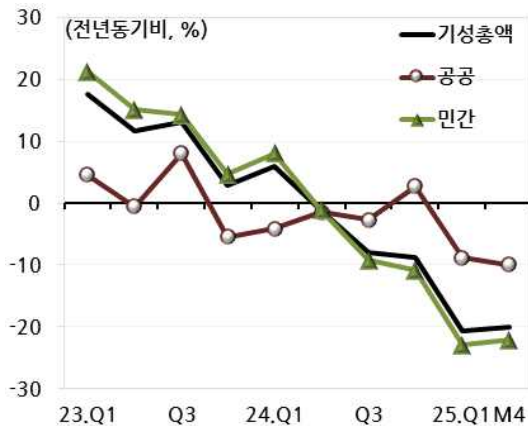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

- 4월 건설기성 증가율(전년동월비)은  $\Delta 20.1\%$ 로 '24년 5월 이후 감소를 지속함
  - ※ 건설기성 증가율(YoY): '24년 4분기  $\Delta 8.7\%$ , '25년 1분기  $\Delta 20.6\%$ , 2월  $\Delta 19.2\%$ , 3월  $\Delta 15.9\%$ , 4월  $\Delta 20.1\%$
- 발주자별로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함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4년 4분기  $2.7\%$ , '25년 1분기  $\Delta 8.8\%$ , 2월  $\Delta 11.3\%$ , 3월  $\Delta 7.5\%$ , 4월  $\Delta 10.0\%$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4년 4분기  $\Delta 10.9\%$ , '25년 1분기  $\Delta 22.9\%$ , 2월  $\Delta 20.9\%$ , 3월  $\Delta 17.9\%$ , 4월  $\Delta 22.1\%$

-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도 4월에 들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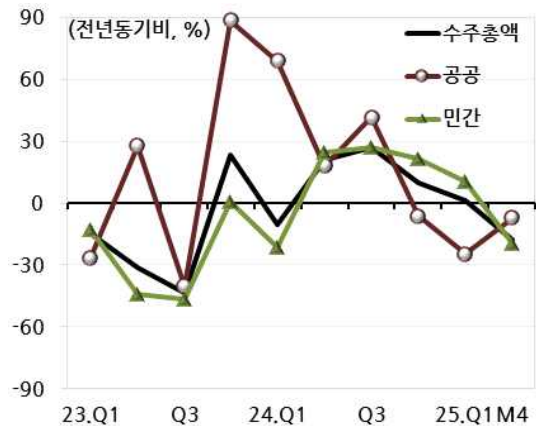
- 4월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Delta 17.5\%$ 로 2월과 3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24년 4분기  $9.7\%$ , '25년 1분기  $1.0\%$ , 2월  $3.0\%$ , 3월  $13.3\%$ , 4월  $\Delta 17.5\%$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4년 4분기  $\Delta 6.3\%$ , '25년 1분기  $\Delta 24.6\%$ , 2월  $\Delta 16.5\%$ , 3월  $\Delta 41.6\%$ , 4월  $\Delta 7.1\%$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4년 4분기  $21.3\%$ , '25년 1분기  $10.4\%$ , 2월  $10.6\%$ , 3월  $34.8\%$ , 4월  $\Delta 19.7\%$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침체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

- 관세 인상의 효과가 시작되는 5월 수출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수출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될 가능성이 상승

· 수출증가율은 4월 전년동월대비 3.7%에서 5월에 들어  $\Delta 1.3\%$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수출액 증가율: 1월  $\Delta 10.1\%$ , 2월 0.7%, 3월 2.8%, 4월 3.7%, 5월  $\Delta 1.3\%$

· 또한, 수출물량증가율은 4월 전년동월대비 6.3%에서 5월에  $\Delta 1.3\%$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수출물량 증가율: 1월  $\Delta 12.4\%$ , 2월 3.0%, 3월  $\Delta 6.6\%$ , 4월 6.3%, 5월  $\Delta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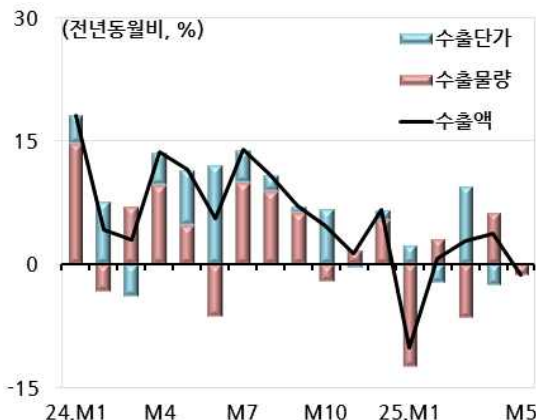
- 5월 수출 중,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5개 품목만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수출의 급감이 크게 우려

·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3.9%), 반도체(21.2%), 컴퓨터(2.3%), 바이오헬스(4.5%), 선박(4.3%)의 5개 품목이 증가세를 기록함

· 그러나, 자동차( $\Delta 4.4\%$ ), 이차전지( $\Delta 18.4\%$ ), 자동차부품( $\Delta 9.4\%$ ), 석유화학( $\Delta 20.8\%$ ), 철강( $\Delta 12.4\%$ ) 등 10개 품목이 감소함

· 특히 자동차 수출은 미국 시장 수출 비중이 약 절반에 달하면서, 이번 품목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모습임

< 총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15대 주력 품목별 5월 수출증가율 >

품 목	증가율	품 목	증가율
반도체	21.2%	디스플레이	$\Delta 18.0\%$
석유제품	$\Delta 20.9\%$	선박	4.3%
석유화학	$\Delta 20.8\%$	무선통신기기	3.9%
자동차	$\Delta 4.4\%$	바이오헬스	4.5%
(전기차)	( $\Delta 15.5\%$ )	컴퓨터	2.3%
일반기계	$\Delta 5.3\%$	섬유	$\Delta 11.4\%$
철강제품	$\Delta 12.4\%$	이차전지	$\Delta 18.4\%$
자동차부품	$\Delta 9.4\%$	가전	$\Delta 14.9\%$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력 산업 및 청년층의 고용창출력 고갈) 전체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 추세가 장기화

- 4월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크게 상승

· 4월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24년 4월)의 3.0%보다 하락하였으나, 4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7.3%로 전년동월의 6.8%보다 급등함

- 4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19.4만 명으로 3월의 19.3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건설업,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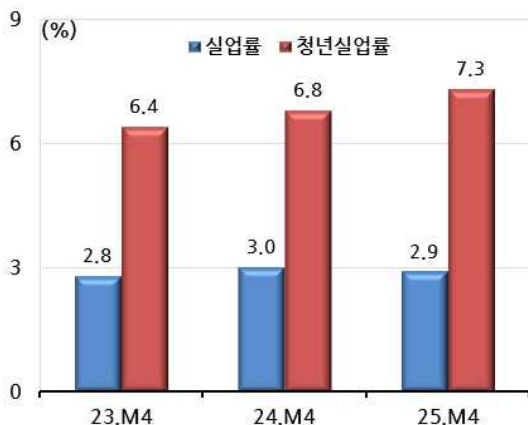
· 4월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19.4만 명으로 3월(19.3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취업자 수 증감(YoY): 1월 13.5만 명, 2월 13.6만 명, 3월 19.3만 명, 4월 19.4만 명

· 4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12.4만 명, 건설업 △15.0만 명, 서비스업 60.5만 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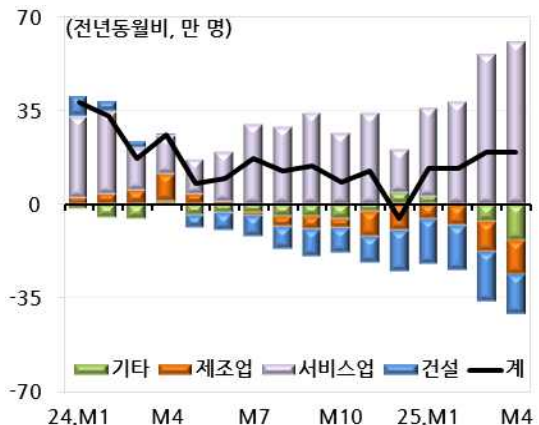
· 한편,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22년 11월 이후 3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4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sup>1)</sup>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1)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

○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 급감 속 수요측 상승 압력 완화)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요측 상승 압력도 완화되는 추세

- 4월 중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안정세를 시현

· 4월 수입물가는 원화 약세('24년 4월 1,369원/달러 → '25년 4월 1,442원/달러)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두바이유)가 급락('24년 4월 89.2달러/bbl → '25년 4월 67.7달러/bbl)하면서 전년동월대비  $\Delta 2.3\%$ 의 감소세로 전환됨

※ 수입물가상승률(YoY): 1월 6.5%, 2월 4.3%, 3월 3.4%, 4월  $\Delta 2.3\%$

· 4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공산품 가격이 안정되고 농림수산물 가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0.9%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월 1.8%, 2월 1.5%, 3월 1.3%, 4월 0.9%

-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대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도 비교적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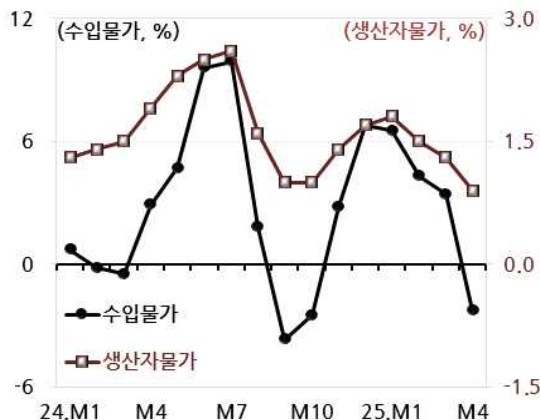
·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류(전년동월대비  $\Delta 2.3\%$ ), 농산물( $\Delta 4.7\%$ )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9%, 전월대비  $\Delta 0.1\%$ 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 5월 1.9%

· 한편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외한 5월 근원물가상승률도 안정세를 지속함

※ 근원물가상승률(YoY): 1월 1.9%, 2월 1.8%, 3월 1.9%, 4월 2.1%, 5월 2.0%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기준.

○ (민간 경제심리 큰 폭의 개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

- 가계가 체감하는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모두 기준치(100p)를 하회하고 있으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시각이 크게 증가

·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5월 63p로 4월(52p) 대비 상승함

※ 현재경기판단 CSI: 1월 51p, 2월 55p, 3월 55p, 4월 52p, 5월 63p

· 다만, 향후경기전망 CSI는 4월 73p에서 5월에 91p로 크게 높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빠르게 확산 중임

※ 향후경기전망 CSI: 1월 65p, 2월 73p, 3월 70p, 4월 73p, 5월 91p

- 한경협 BSI와 한은 CBSI 등의 기업심리지수<sup>2)</sup>도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6월에 들어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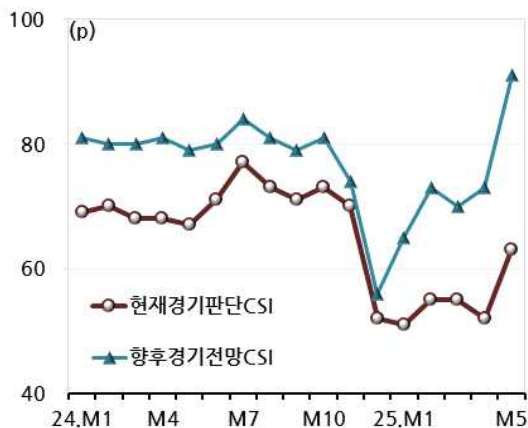
· 한경협 BSI(전망)는 5월 85.0p에서 6월에 94.7p로 크게 개선됨

※ 한경협 BSI(전망): 1월 84.6p, 2월 87.0p, 3월 90.8p, 4월 88.0p, 5월 85.0p, 6월 94.7p

· 또한, 한은 6월 CBSI(전산업)는 89.5p로 5월(86.3p)보다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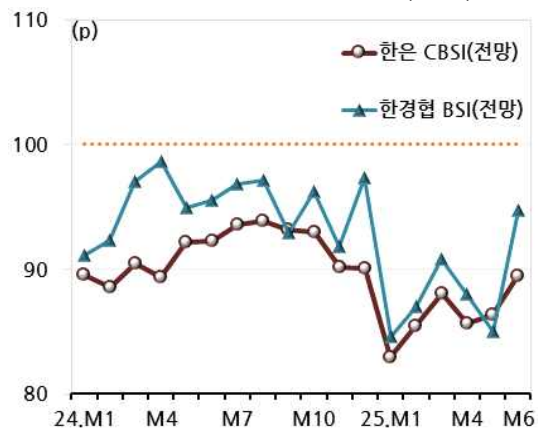
※ 한은 CBSI(전산업): 1월 82.9p, 2월 85.4p, 3월 88.0p, 4월 85.6p, 5월 86.3p, 6월 89.5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2) 한경협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C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전산업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특히 건설업 생산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

- 4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증가세가 약화되고 전월비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기록

-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3월 0.9%에서 4월에 0.4%로 증가세가 둔화됨

-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1월  $\Delta$ 3.8%, 2월 1.2%, 3월 0.9%, 4월 0.4%

- 한편 전월비 기준은  $\Delta$ 0.8%로 3월의 증가세(0.9%)에서 감소세로 전환됨

-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 1월  $\Delta$ 1.6%, 2월 0.7%, 3월 0.9%, 4월  $\Delta$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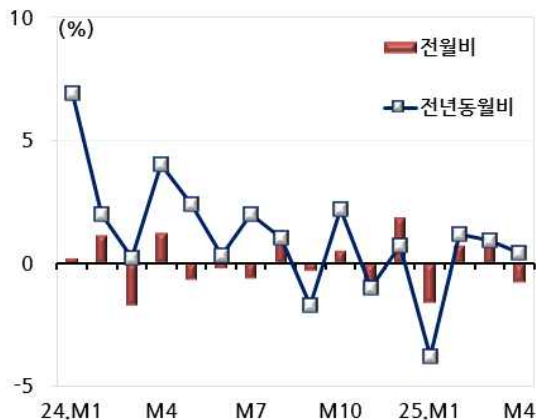
- 4월 중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광공업, 서비스업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

- 대내외 여건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3월 전년동월비 4.4%에서 이어 4월에도 4.9%를 기록함

-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1월  $\Delta$ 5.0%, 2월 6.5%, 3월 4.4%, 4월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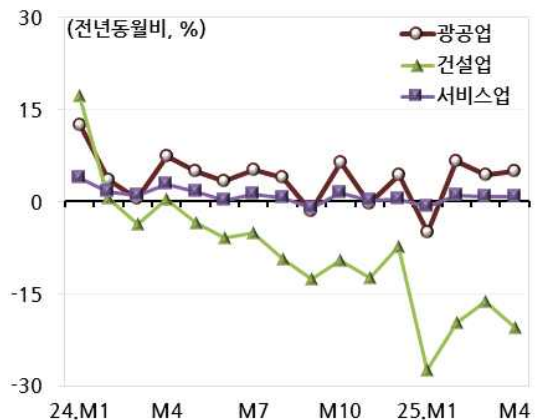
- 한편, 4월 건설업의 전년동월비 생산증가율은  $\Delta$ 20.5%이며, 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은 각각 0.7% 및  $\Delta$ 1.0%를 기록함

<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수출 경기 불확실성에도 제조업은 재고·출하 사이클로 보면, 여전히 수요가 산업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월 이후 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가동률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

·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기준 반도체(21.8%), 기타운송장비(29.5%)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Delta 0.2\%$ ), 석유정제( $\Delta 2.9\%$ ) 등에서 감소함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1월  $\Delta 5.0\%$ , 2월  $6.5\%$ , 3월  $4.7\%$ , 4월  $5.2\%$

· 한편, 4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3월보다 다소 낮은 73.8%를 기록함

※ 제조업 평균가동률: 1월 73.4%, 2월 72.7%, 3월 74.5%, 4월 73.8%

- 재고의 감소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출하 증가율은 4월에 들어 상승하면서,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수요가 제조업 경기 하강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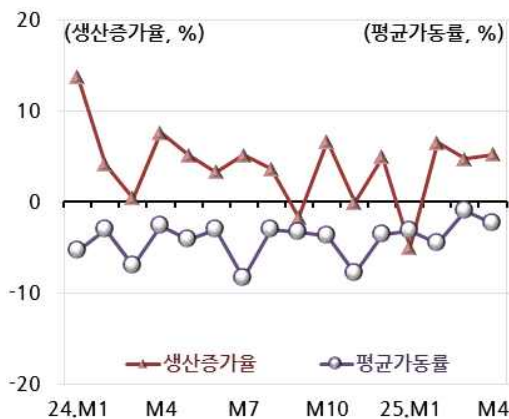
· 2월 이후 제조업 출하(전년동월대비)가 증가세를 지속 중인 것으로 볼 때,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아직은 견조한 시장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출하증가율(YoY): 1월  $\Delta 8.2\%$ , 2월  $5.1\%$ , 3월  $0.7\%$ , 4월  $2.5\%$

· 한편, 재고증가율은 출하가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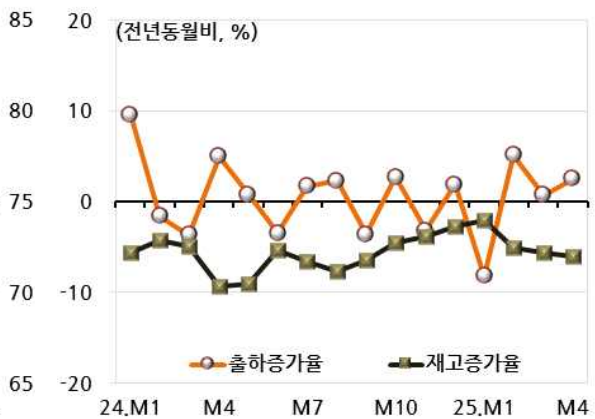
※ 재고증가율(YoY): 1월  $\Delta 2.1\%$ , 2월  $\Delta 5.1\%$ , 3월  $\Delta 5.7\%$ , 4월  $\Delta 6.0\%$

<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 >



자료: 통계청.  
주: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침체

- (서비스업) 재화와 서비스 소비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 기준으로 3월과 4월에 감소세를 지속함

· 전월비 서비스업 생산은 3월( $\Delta 0.1\%$ )에 이어 4월에도  $\Delta 0.1\%$ 의 감소세를 지속함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1월  $\Delta 0.9\%$ , 2월  $1.0\%$ , 3월  $0.8\%$ , 4월  $0.7\%$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1월  $\Delta 0.9\%$ , 2월  $0.8\%$ , 3월  $\Delta 0.1\%$ , 4월  $\Delta 0.1\%$

· 전월비 기준으로 4월 중 도소매( $1.3\%$ ), 운수·창고( $2.1\%$ )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금융·보험( $\Delta 1.2\%$ ), 전문·과학·기술( $\Delta 3.6\%$ ), 협회·수리·개인 서비스( $\Delta 6.3\%$ ), 보건·사회복지( $\Delta 0.4\%$ ) 등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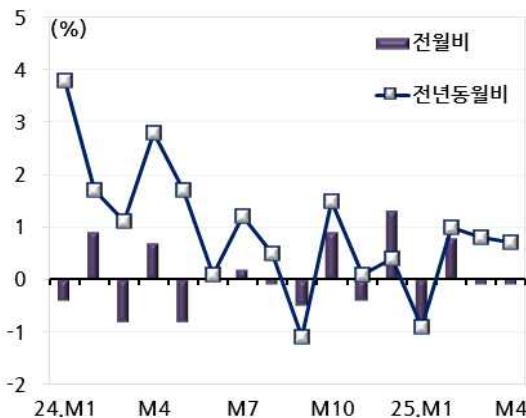
-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감소

· 4월 건설수주(전년동월비)는 토목 부문( $\Delta 33.8\%$ )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 부문의 건설수주 증가율이 2월( $1.3\%$ )과 3월( $71.0\%$ )의 증가세에서 4월에 ( $\Delta 11.0\%$ ) 감소세로 전환됨

※ 토목건설수주 증가율(YoY): '24년 4분기  $\Delta 22.4\%$ , '25년 1분기  $\Delta 41.6\%$ , 2월  $8.0\%$ , 3월  $\Delta 70.5\%$ , 4월  $\Delta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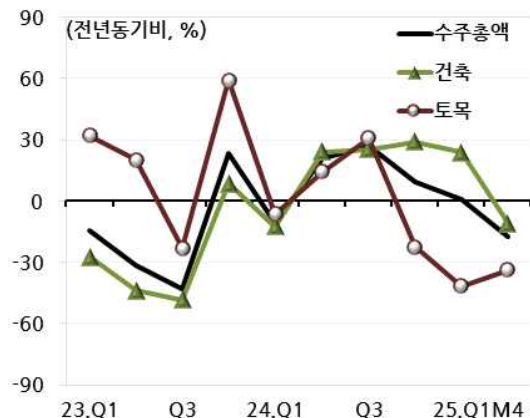
※ 건축건설수주 증가율(YoY): '24년 4분기  $28.9\%$ , '25년 1분기  $24.0\%$ , 2월  $\Delta 1.3\%$ , 3월  $71.0\%$ , 4월  $\Delta 11.0\%$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공종별 건설수주액증가율 >



자료: 통계청.

###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①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Trump Tariff Uncertainty)에 따른 수출 경기 급락, ② 미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의 확산과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의 이력현상(Hysteresis) 지속, ③ 건설업 장기 불황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Economy Bugged Down) 등의 리스크 요인 향방에 의존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

#### ①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Trump Tariff Uncertainty)에 따른 수출 경기 급락

-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전반의 위축이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 경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침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품목 관세 및 상호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통상정책 자체의 불확실성(예측불가능성)이 글로벌 교역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sup>3)</sup>: '24년 9월 94.9p, 12월 1,319.0p, '25년 1월 1,725.7p, 2월 2,583.9p, 3월 5,912.1p, 4월 7,983.0p, 5월 5,846.7p
    - 특히,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율 인상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반도체, 바이오 등의 품목 관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 경기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나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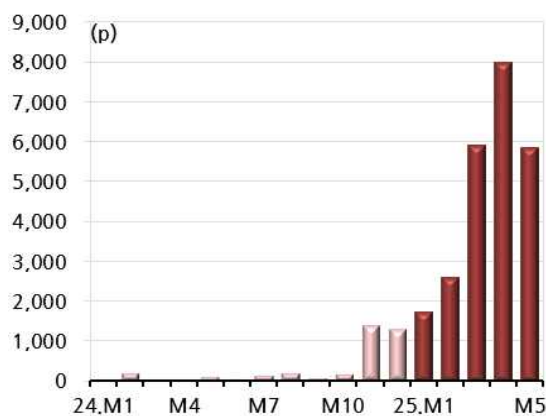
3)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정책 불확실성 통계 사이트([www.policyuncertainty.com](http://www.policyuncertainty.com))」에 구축된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의 하위 범주 데이터 중 하나이며, 각 범주형 데이터들은 2,000개 이상의 미국 및 세계 언론사들의 뉴스를 기반으로 도출됨. 수치는 1985~2010년의 평균이 100에 근사하도록 정규화되었으며, 그 값이 높을수록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임.

호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 전반적인 수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나, 한·미 관세 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될 경우 수출 침체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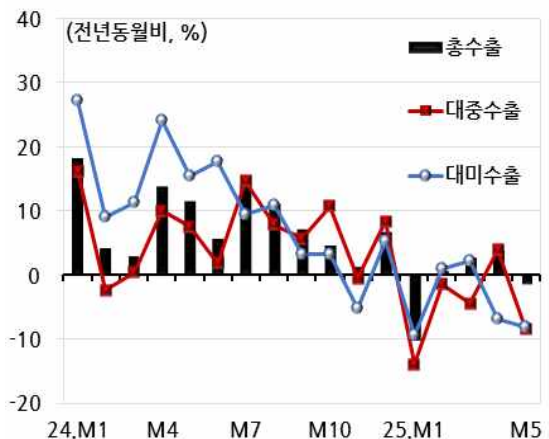
- '25년 기준 우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18.7%, 대중 수출 비중은 19.5%(홍콩 포함 24.6%)에 달함
- 5월 수출의 수출시장별 증가율을 보면, EU(4.0%)는 증가하였으나, 미국(△8.1%), 중국(△8.4%), 아세안(△1.3%)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함
  - ※ 대미국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1월 △9.4%, 2월 0.9%, 3월 2.2%, 4월 △6.8%, 5월 △8.1%
- 한편, 최근 미·중 통상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의 강도가 다소 약해질 가능성도 존재함
- 아직은 가능성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수출 경기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Trade policy Uncertainty) 지수 추이 >



자료: www.policyuncertainty.com.

< 한국 대미수출 및 대중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관세청.

② 미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의 확산과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의 이력현상(Hysteresis) 지속

○ 미래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예비적 저축 동기(Precautionary Saving)의 확산과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의 이력현상(Hysteresis)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구매력마저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증대

- '24년 하반기 이후 내수 경기 침체, 대외 경제 여건 악화, 국내 정치 불안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 '25년 1분기 평균소비성향<sup>4)</sup>은 69.8%로 전년동기('24년 1분기)의 71.9%보다 2.1%p 하락함
- 이러한 평균소비성향 하락 현상은 '24년 3분기부터 시작되었는데, '24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3%p 그리고 '24년 4분기에는 1.1%p 감소함
- 이는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로 향후 실직 등과 같은 고용 상황에 대한 불안(Precautionary Saving<sup>5)</sup>) 심리가 높아져,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는 절약 지향적 소비 행태가 고착화(Hysteresis)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편, 미국의 통상 정책 급변으로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부문의 부침이 우려되고, '24년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던 점도 소비 심리의 회복을 가로막았던 요인으로 생각됨

-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급감하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구매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소비 침체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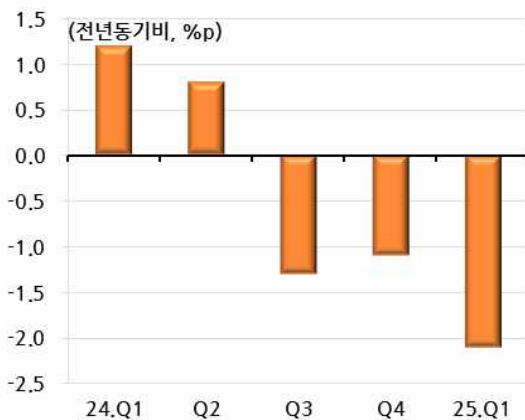
- '25년 1분기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기비  $\Delta 0.2\%$ 로 '24년 4분기의 0.1%에서 0.3%p 하락함

4) 평균소비성향이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text{소비지출}/\text{처분가능소득}) \times 100]$ 이며, 이 값이 높을수록 가계 소비가 활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됨.

5) 예비적 저축 동기란 현재의 가계 소득 비출 상황에 문제가 없더라도, 미래 소득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미래 일정 수준의 소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심리를 의미함. 따라서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예비적 저축 동기가 상승함에 따라 현재의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됨.

- 실질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sup>6)</sup> 증가율은 '24년 4분기 0.7%에서 '25년 1분기에 0.1%로 0.6%p나 급감함
- 이는 경제가 후퇴(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즉 실질 GDP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소득 개선이 정체되었다는 의미임
- 소비 성향의 위축은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 요인만 해소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 그러나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실제 구매력이 위축되는 현실적인 유동성 제약이 가세할 경우, 극단적인 처방 없이는 소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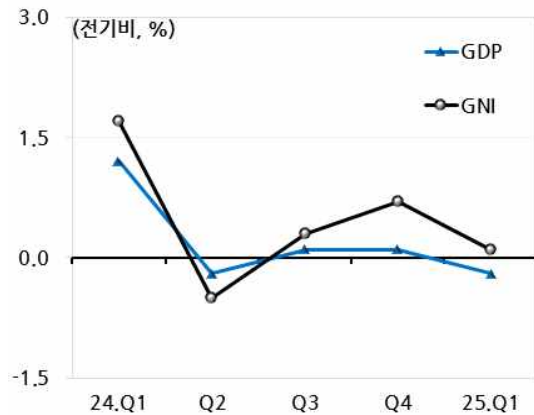
< 가계 평균소비성향 증감 추이 >



자료: 통계청.

주: 전국, 1인 이상, 명목, 전체가구 기준.

< 실질 GDP(국내총생산) 및 GNI(국민총소득) 증가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③ 건설업 장기 불황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Economy Bugged Down)

○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력과 고용창출력을 축소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 1분기 역성장의 주된 원인이 건설투자 침체에 있으며, 나아가 건설업은 제조

6) 국민총소득(GNI)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경제 전반의 구매력을 대표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임(실질GNI =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실질국외순취요소소득).

업과 함께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Delta 0.1\%$ 로 역성장을 보였는데, 이 중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Delta 1.5\%p$ 로 만약 건설투자가 제로 성장(건설 투자 증가율이 0%)만 했어도 경제성장률은 1.4%가 되었다는 의미임<sup>7)</sup>
- 또한 4월 기준 건설업의 취업자수증감은 전년동월비 약  $\Delta 15$ 만 명으로, 이는 '24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임

- 올해 정부 예산(추경) 중 토목(SOC) 제정지출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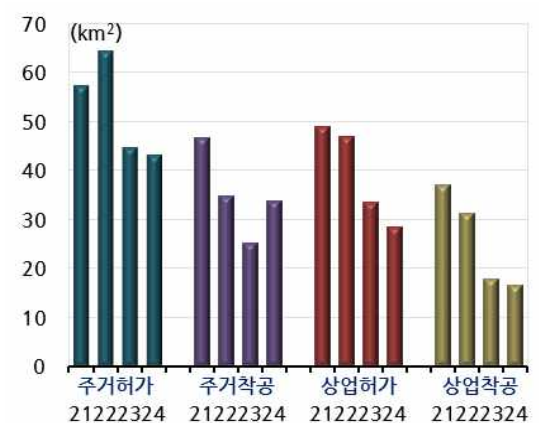
-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25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 중 비록 SOC 예산은 기존 25.4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24년 예산 규모인 26.4조 원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토목 분야의 건설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24년 기준으로 건설투자의 약 73%에 달하는 건축 부문의 경우 그 선행지표인 허가와 착공 규모가 급감해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침체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 경제성장기여도 및 건설업 취업자증감 추이(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취업자수증감은 각 분기 말월 기준이나, '25년 1분기는 4월 기준.

< 주거 및 상업 건축 허가/착공 면적 규모 추이 >



자료: 통계청.

7) 또한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Delta 0.2\%$ 로 역성장을 보였는데, 이 중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Delta 0.4\%p$ 로 만약 건설투자가 제로 성장이었다면 경제성장률은 0.2%가 되었다는 의미임.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 (현 경기 판단) 전체 경기를 보여주는 총량경제지표(Aggregate Economic Index)<sup>8)</sup>의 흐름에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2분기에 들어 회복 사이클 초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부문별로는 대부분 활력이 약하여 전체 경기 회복세의 강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
  - 1분기 과도한 경기 침체(역성장)의 영향으로 2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미래 경기 전환점 도래를 예고하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민간소비(GDP 대비 비중 48.5%), 건설투자(14.2%) 등의 내수 부문은 침체가 지속 중이거나 회복세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생각됨
  - 나아가, 수출(44.6%, 순수출 비중 4.0%) 경기가 2분기 이후 미국 관세 인상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임
  
- (향후 경기 전망) 현재 한국 경제가 경기 전환점(경기 하강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 부근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부문별로 보면 자력으로 리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대미 통상협상 결과)의 향방」과 「정책의 내수(소비 및 건설투자) 경기 진작 의지」에 따라 경기 방향성과 회복력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b>① U자형 (U-shaped)</b>	<b>완만한(Moderate) 회복 시나리오(Positive Scenario)</b>
-------------------------	---

- '24년의 경기 하강 속도와 향후 경기 상승 속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25년 말경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경로를 의미함

8) 총량경제지표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국민계정」을 예를 들면 소비, 투자, 수출 등의 부문별 지표가 아니라 이를 모두 합한 GDP가 해당되며, 이외 「산업활동동향」 상에서는 전산업 생산이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을 들 수 있음. 총량경제지표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부문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실제의 경기 흐름과 향후 방향성을 충분히 식별해 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

- 향후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최소한으로 그치고,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 경기 대응용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빠른 금리 인하 - 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우호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함

② 스우시 (Swoosh)

저속(低速) 회복 시나리오(Base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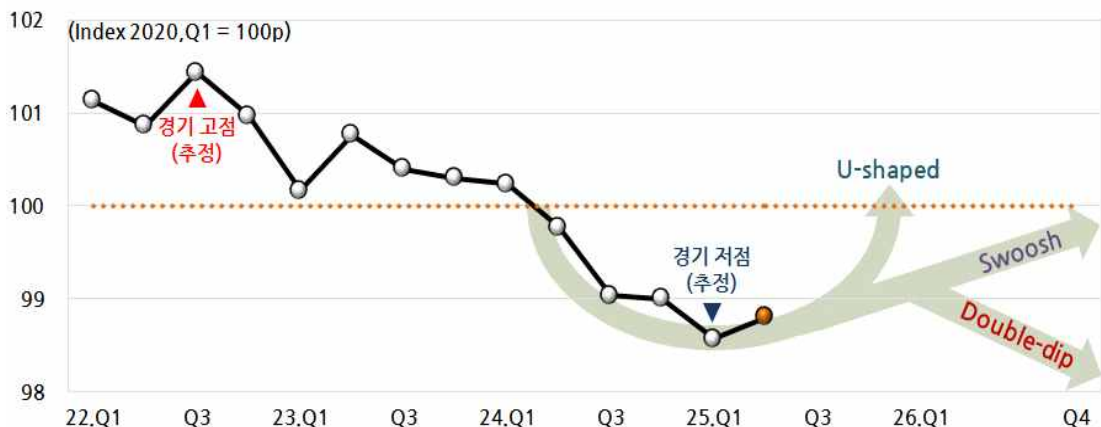
- 향후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U’ 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와 동일하나, '24년의 경기 하강 속도보다 향후 경기 상승 속도가 크게 낮아 경제 상황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로를 의미함
-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고, 다소 소극적인 거시경제정책 - 경기 대응용이 아닌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용 추경의 편성 및 중립적 통화정책 - 으로 충분한 회복의 모멘텀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함

③ 더블딥 (Double-dip)

재침체 시나리오(Negative Scenario)

- 향후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동력이 작용하나, 곧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경로를 의미함
-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고, 거시경제정책적 대응이 부재 - 추경의 적시성(適時性) 상실 및 매파적 통화정책 - 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대내외 비관적 평가가 고착화되는 것을 전제로 함

<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4. 시사점

첫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최근 한국 경제의 과도한 부침 속에서 현안의 경중(輕重)을 판단할 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탈출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출산을 저하, 고령화, 투자 부진 등의 원인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경기 대응’ 보다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중심을 둔 경제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중장기 성장 추세의 하락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의 상의 내수 침체 장기화와 대외 여건 악화로 시장의 자생적인 복원력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향후에도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회복 모멘텀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높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해외 시장마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
- 따라서 정부 및 민간 경제 주체들의 역량에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대응’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당분간은 더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여 대응하려는 정책 기조가 절실함

둘째,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상실한 내수 부문의 위기를 보다 심각히 바라보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의 적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새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해 구체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경우 시장에 시그널 효과(정부가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 확산)를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민간 경제 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침체가 고착화되어 초저성장 국면 탈출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구매력 지원, 간접적인 감세 정책 등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후 회복 국면 안착을 위해 당분간은 안정보다 성장에 주안점을 둔 정책 기조가 전개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경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셋째, 현재 한국 경제의 순(順)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건설투자 장기 불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최근 경제성장률의 역성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과거 인위적인 경기 진작의 수단으로 건설 시장 부양을 흔히 사용하면서, 한국을 ‘토건(土建) 공화국’으로 부를 정도로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높은 국민경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건설 경기 침체를 방치한 채 아무리 다른 부문의 경기 진작을 도모하더라도 경제 전반의 경기 활성화 성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24년 연간 기준 건설투자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총 362조 6,038억 원으로 전체 GDP 규모 2,549조 1,207억 원의 14.2%에 달함
  - 특히,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Delta 0.2\%$ 로 역성장을 보였는데, 이 중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Delta 0.4\%p$ 로, 만약 건설투자가 제로 성장만 기록했다라도 경제성장률은  $0.2\%$ 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음
  - 나아가, 건설업은 산업연관효과가 높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악화는 연쇄효과를 통해 철강, 시멘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건설 시장이 주된 수요처인 후방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건설업 취업자수는 장기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일용직 비중이 작지 않고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면 건설 경기 침체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동산 시장 버블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투자가 건강한 펀더멘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함
- 우선 토목 부문에 대해서는 SOC 투자 등의 조기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며, 향후 2차 추경 편성 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기존 중장기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상 일부 사업의 실행 시기를 앞당겨 추경안에 포함함으로써 건설 시장의 공공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현재 건설 시장 가장 큰 현안인 건축 경기 불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지방 시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요구되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금융 시장의 지원 병행, 공사비 현

실화를 통한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 등의 미시적 노력도 필요함

- 한편, 최근 주택 시장의 수주 절벽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시급히 수립되고 그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는 발주가 이어져야 할 것임

넷째,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를 위협하는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신속히 마무리하되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지속해 나가는 투-트랙이 요구된다.

-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가장 큰 대외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을 조속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협상이란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의 손실이 감내할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해 업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한·미 관세 협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중간재 조달 공급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미국의 통상 전략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 교역 구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차원을 중심으로 한·중 산업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품목 또는 시장 수요 충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 품목 다변화(중간재 중심에서 최종재 중심으로) 및 수출 지역 다변화(G2 중심에서 탈피)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초저성장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 사회 안전망 전반을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복지재정지출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강화,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출 확대, 공공요금에 대한 바우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 단계 상승에 따른 재정 수요 급증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혜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의 비중이 높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